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공석우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 김은화 이화니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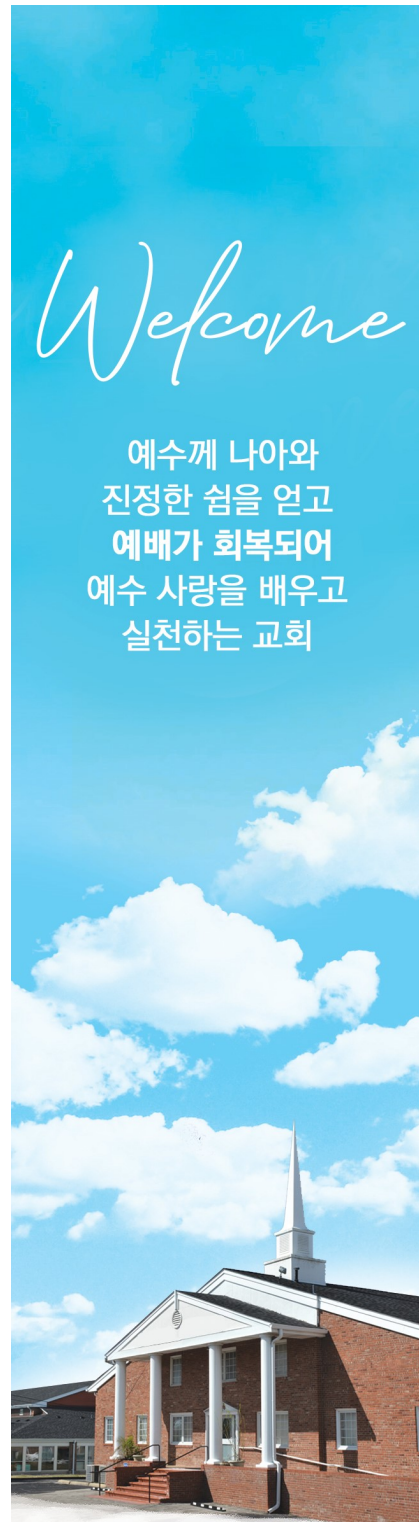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Agape Hall (314)786-5018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10.1.2023

모든 상황 속에서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John 3장
참회의 기도	역대하 2 Chronicles 7:14
찬송	찬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같이
기도	오귀록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시편 Psalm 57편 1-11, OT p 842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 김성직 목사
Sermon	In Every Circumstance
*결단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목회자컬럼 // 김성직 목사

은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인 유대 출신의 열 두 제자들을 향해서, ‘헬라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꾸 누락된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열 두 제자, 바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행 6:2-4)”

이렇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목회자” 대신 다른 여러 사역들을 맡게 된 충성된 일꾼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집사”라는 직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마만큼 지도자인 목회자가 직접 나서야 되구요, 그러다 보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목회자 본연의 기능을 점점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목회자”인 저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 바로 우리 “집사님들” 이십니다.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제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루하루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이렇게 “목회자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각자 맡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간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럴듯한 핑계도 있었지만, 늘 제 마음에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제 몇 차례의 만남 후에 안수집사/권사 임직식을 11월 중에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직분자들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오래 전 제가 목회자컬럼에 썼던 내용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교육도 함께 진행될 건데요, 다른 성도님들도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Job Description - 집사”

일단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헌법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권고하며, 병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행 6:1-3)”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팎에서 교회 사역에 관련된 온갖 거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

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뒤에서 조용히 움직여야 하는 허드렛일이 될 수도 있는 직분이구요, 또 재정에도 관련되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시험에 들기 쉬운 직분이 바로 이 “집사”입니다. 뭘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직분이구요, 그러다보니 쉽게 지치기도 쉬운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사”의 Job Description 에서 만큼은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숨은 일꾼들인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이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잠깐 보고자 합니다.

헌법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집사”라는 직분은 사도행전 6장에 근거한 직분입니다. 때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밖에서는 핍박과 탄압이 심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여러 문제들도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출신에 따라서, ‘유대 출신의 히브리파’나 ‘해외 출신의 헬라파’나 하는 두개의 파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

성서교독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John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다같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만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끝도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는 늘 믿고 의지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만 평생 살아가기를 나는 진정 소망하고 사모하는지, 돌아보세요.

2.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로 확정되어 깨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저런 억울하고 우울한 내 상황 속에서 이제는 Wake Up 깨어 주를 바라보는지,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다른 사람 바라보다가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Wake Up 깨어 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을 주께로 확정하고 확정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

10/1		10/7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대표 기도	윤순기 장로
교회 안내	이선영 집사	교회 안내	이복례 집사
번역/통역	이화니, 송명신 자매	번역	김예람 자매
애찬 담당	중국 구역	애찬 담당	케냐 구역
교회 청소	키르키즈스탄 (10월)	교회 청소	키르키즈스탄 (10월)

향기로운 예물 9/24/2023

주일	\$850	건축	\$0	주일학교/유스	\$5
십일조	\$4,545	첫열매	\$0		
감사	\$970				
선교	\$0				
구역선교	\$240			현금총액	\$6,610.00

현금 외 수입금

아가패홀 사용비 \$200

입금총액 \$6,810.0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정기제직회

오늘 식사교제 후 1시에는 3/4분기 정기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2. 정기당회

오늘 제직회 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3. 구역장

당회는 요르단 구역의 새구역장으로 전세환장로님, 김은화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기존 구역장이셨던 황규식집사님은 새로운 사명으로 세미나리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행사

10월 1일 (주)
정기제직회
정기당회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위해서

기도가정 조옥희 집사님 가정 위해서